

2016. 3.

- 보령수산물식품거점단지 가공분야 활성화를 위한 -
「연계사업 발굴 및 보완계획」



〈 개 요 〉

천북수산물식품거점단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거점단지 내 가공관련 산업화 지원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당초 해수부의 지원 취지에 부합되는 연계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모색하기 위함

※ 기존 『천북수산물식품거점단지』와 우리시 핵심과제인 『해삼융복합양식클러스터 구축사업』 연계

I 배경 및 필요성

1 해삼산업의 성장잠재력 지속 증대

- 한·중 FTA체결로 자유화 품목인 해삼의 對중국 수출전망 양호
 - 중국 내 해삼의 보양 및 강장효과에 대한 인식과 소득향상이 맞물려 해삼소비가 중국내륙까지 확산되는 추세(온라인 시장 활성화)
 - ※ 최근 중국의 반부패·사치품 규제로 인해 해삼소비가 감소추세이나, 이는 시장요인이 아닌 정책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수요 및 가격은 중·장기적으로 회복될 전망
 - 건숙·자숙해삼시장의 유통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함(FAO, 2011)
- 현재 일본은 글로벌 수산기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일괄시스템 구축을 통해 對중국 해삼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
 - 해삼산업의 가치사슬(value chain)단계별(종묘→중간육성→양식→가공→판매)로 수직적 일괄시스템 구축
 - ※ 글로벌 수산기업 ‘마루하니치로’는 카이센쿠라쿠부(海蔘俱樂部)와 공동출자하여 ‘마루하니치로 카미노구니’社 설립

2 보령은 전국 지자체 중 해삼 어획량 3위(수산정보포탈, 2011)

- '11년 기준으로 통영, 태안 다음으로 어획량 3위 기록
 - 생산량 및 금액기준으로 전국대비 각각 289MT(14.2%), 6,036백만원(20.0%) 수준
 - 다만, 가공기반이 매우 취약(보령해삼영어조합법인 단 1개소)하여 어획량의 대부분을 통영지역 가공업체에 넘기는 실정(역

내 어촌계 및 충남해삼생산자협회 인터뷰 실시결과)

3] 전북수산물식품거점단지와 연계한 해삼산업화 기반 확충 모색

- 양식에만 머무르는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식품거점단지와 연계한 가공 및 판매(수출)관련 산업화 지원기능의 도입 要
- 인접한 태안지역 역시 비슷한 실정으로 보령과 태안지역에서 양식 되는 해삼을 지역에서 가공·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
- ※ 산업화 지원기능(식품R&D, 가공공장, HACCP인증 및 마케팅 등)

II 대내외 여건

1] 생산 및 소비동향

-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은 전세계 해삼생산량의 76.8% 차지
 - 92,567M/T('08) → 170,830M/T('12)으로 연평균 16.6%씩 증가
 - ※ 중국은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
 - 중국 내 최대 생산지는 산둥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해안지역에서 남방해안지역(북전, 절강, 강소)으로 지속 확산 추세
 - 해삼양식은 축제식 양식 75%, 씨뿌림 양식 25% 수준
- 해삼의 보양 및 강장효과 인식확대로 중국 전역으로 소비확대
 - 자국 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 및 온라인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중서부 내륙으로 해삼유통경로 확대

중국건해삼 주요 온라인 판매사이트

구 분	중문명	웹사이트
타오바오왕	淘宝网	www.taobao.com
이치왕	易趣网	www.eachnet.com
알리바바	阿里巴巴集团	www.alibaba.com

자료 :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해외시장 정보(2013)



중국 건해삼 유통경로

2 보령시 해삼산업 여건

- 전국 어획량 상위 10위 지자체 중 태안과 보령은 각각 2, 3위('11)
 - 중량기준으로 태안과 보령 각각 483M/T(23.7%), 보령 289M/T(14.2%)
 - 금액기준으로 태안과 보령 각각 전국대비 7,667백만원(25.4%), 6,036백만원(20.0%)를 차지
- '14년 기준, 도내 30개 어촌계 관할 해삼어장 면적 1,643ha임
 - 이 중 보령지역 어장면적이 가장 넓음
 - ※ 장고도 어촌계 340ha, 삽시도 및 외연도 어촌계 각각 180ha, 녹도 어촌계 150ha
- 보령지역 해삼가공기반 절대적 취약
 - 보령해삼 영어조합법인 단 1개소(일부 어민의 무허가 가공 제외)
 - ※ 동 법인은 원삼수급의 30%정도를 관내에서 확보하며, 나머지 70%를 전국각지에서 확보
- 해삼양식 관련 연구기반
 - 충남 수산연구소 관내소재 및 친환경 양식특화연구센터 조성예정

3 SWOT 분석

- 강점(strength)
 - 냉수대 영향으로 해삼양식 최적합지역, 다수 양식자 존재
- 약점(weakness)
 - 산업화 기반취약(가공업체 및 유통기반 미흡), 수직적 일괄시스템 미비
- 기회(opportunity)
 - 한·중 FTA체결, 중국 내 해삼수요 지속 증대
- 위협(threat)
 - 중국정부의 반부패·사치품 규제, 해외기술 및 자본력 격차

4 향후과제

- 수직적 일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묘 및 중간육성→양식→가공→판매 단계별 중 가장 취약한 부문인 가공 관련 산업화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함

III 연계사업 계획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해삼산업 수직적 일괄시스템 구축사업
- 사업대상 : 천북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 인접부지
- 사업규모 : 661.2~991.7㎡
- 총사업비 : 약 20억 내외
- 사업기간 : 2018~2020(3년)
- 사업내용 :
 - 가공공장(보관수조, 가공시설(HACCP), 건조실, 자숙실, 냉동창고 등)
 - 식품 R&D지원센터(건삼 및 즉식제품 등 시제품 제작 등)
 - 마케팅 지원센터(포장 및 브랜드, 판매지원 등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가공시설	식품 R & D	마케팅	비고
사업비	2,000	1,000	500	500	-

※ 총 사업비는 부문별 시설규모에 따라 유동적임.

2 사업위치 및 사업보완계획 현황도



사업위치도



사업보완계획 현황도

※ 산업화 지원시설(해삼산업 수직적 일괄시스템 구축사업)은 향후 對중국 수출규모에 따라 단계적 확대 모색(보령신항을 향후 해삼수출 전진기지로 활용)

IV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

1 운영방안

○ (초기단계) : 소규모 가공업체 대상 시설 공동이용 모색

- (1안) 관내수협에 시범 위탁운영
- (2안) 충남해삼생산자협회 소속 어촌계를 대상으로 가공협회 구성
- (3안)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의 형태로 운영
- (4안) 별도의 영어조합법인 구성

※ 여러 운영방안 중 지역여건에 맞는 현실적 대안을 강구 예정(토론회, 공청회,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)

○ (발전단계) : 가공 및 산업화 지원시설 확대

- 對 중국 유통경로를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민간주도의 대규모 가공업체 집적화 유도

※ 기존 수산식품거점단지 인접용지 확보

2 기대효과

○ 양식→가공→판매의 선순환 체계 구축

- 지역(보령, 태안)에서 생산되는 해삼의 타지역 가공업체로의 유출 비중 최소화

※ 유출비중 90~95%(현재) → 동 사업을 통해 50% 수준으로 유출비중 감소

○ 해삼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수직적 일괄시스템 구축

- 해삼 가공산업 내 규모의 경제(economy of scale)구현

○ 지역 어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
-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지역 어민소득으로 전환

※ `11년 기준으로 보령 관내 해삼양식량 289M/T 중 50%를 지역에서 가공·판매(수출)할 경우, 최소 3~5배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예상(매년 소득확대 약 90~150억 수준)